

침묵하는 과학기술인과 다양성 결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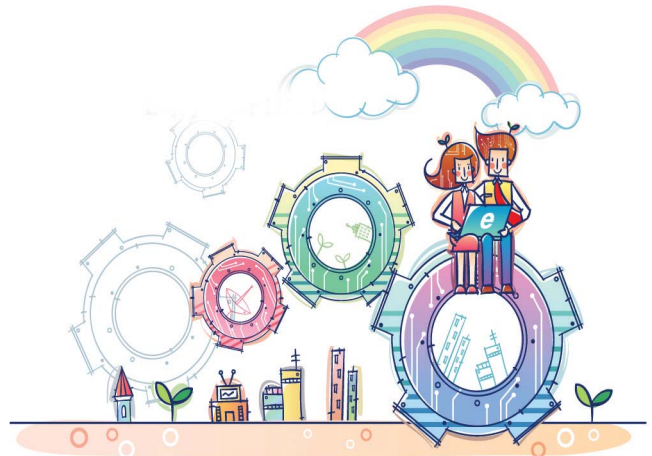
글 | 김중수 _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kimjs@kist.re.kr

지난 3월에 '과학과 기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위촉되고 잡지의 성격과 편집방향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한 편집업무 가운데 하나가 '과기현장의 목소리'라는 현장의 비교적 젊은 과학기술인들이 발언할 수 있는 칼럼의 필자를 섭외하는 일이었다.

아마 다른 편집위원들은 이미 섭외가 가능한 자원이 동이 났을 법도 했을 것이다. 필자가 섭외과정에서 느낀 점은 과학기술인들이 참 글쓰기를 주저한다는 점이다. 그것도 외형적인 학벌이 좀 더 좋아 보일수록 더 그랬다. 하긴 현장의 목소리와 같은 통상적인 칼럼이라도 용비어천가를 읊어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계다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요즘 세태에 괜히 미운 털 박힐 일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지 모른다. 평상시에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가방끈과 철학적 사고능력 사이에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고 떠들고 다니던 필자로서는 이러한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 더 없이 쓸쓸할 따름이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연구행위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어찌하여 자기주장을 당당하게 펼칠 수 없는 반쪽짜리 지식인으로 남게 되었을까? 불현듯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1990년부터 1997년까지 UC 버클리의 총장을 지냈던 티엔 창린(田長霖, 1935.7.24~2002.10.29) 교수가 생각난다.



학문적 다양성 지킨 동양계 출신 UC 버클리 총장

중국 우한출생인 그는 국공내전의 종전과 함께 대만으로 가족이 피난을 가서 국립대만대학의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다. 그 후 미국의 캔터키주에 있는 루이빌대학에서 석사학위와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 그의 교육과 연구인생의 대부분을 UC 버클리에서 보내게 된다. 여기에서는 그의 연구경력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그가 노벨상 수상자보다도 되기 어렵다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석좌교수가 되었다는 정도로, 그것도 노벨상의 분야에도 없는 공학자로서, 그의 학문적 수준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티엔 교수가 생각난 이유는 그가 미국의 명문 연구중심대학의 총장이 된 최초의 동양계 미국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대학의 인적·학문적 다양성을 수호한 업적 때문이다. 소수인종의 약진으로 기득권 유지에 위기의식을 느낀 캘리포니아주의 백인층에서 차별철폐조치의 '역차별'의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급기야 1995년 UC 평의회(캘리포니아 대학의 이사회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UC의 모든 캠퍼스 관장)가 인종에 관한 자료를 입학사정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을 때, 그가 시사잡지 TIME의 맨 마지막장에 기고한 글은 아직도 감동적이다.

그는 인종차별이 존재하던 센터키에서 석사학위를 하던 시절 앞자리는 백인석, 뒷자리는 흑인석인 버스에서 자기가 앉을 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던 괴로운 시기를 회상하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는 암울한 사회를 경고함과 동시에 사회적·철학적 다양성의 확보가 인재양성 및 학문발전에 절대로 필요하다고 설파하였다.

그는 대학의 총장으로서 약화된 차별철폐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버클리 서약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학생 발굴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주재정이 악화되었을 때 무려 14억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모금해서 대학을 재정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진정성과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록 그는 뇌종양에 의한 합병증으로 조기은퇴한 이후 67세의 한창 나이에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그가 학자로서, 그리고 대학의 경영자로서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이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동양계 총·학장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티엔 교수의 이러한 행동과 우리 나라 대학의 현주소를 비교하여 볼 때, 과연 사회적 그리고 철학적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서 대접받고 있는 가치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학은 교직원에서부터 학생까지 인적구성의 다양성이 현저히 후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학문적 다양성과 철학적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현실이다.

사회적·철학적 다양성 확보해야 과학계·학문 발전

변증법과 같이 그럴 듯한 철학적 용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사고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사고가 학문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런데 우리 나라 대학의 교수사회는 이미 화려한 학벌, 세상이 뒤집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부동산, 그리고 정부로부터 묻지마 R&D 투자분야로 지

정받은 전공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면 로또에 당첨될 행운 없이는 진입할 수 없는 클럽이 된 것처럼 보인다. 자고로 클럽이란 곳이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일단 들어가면 동질성에서 오는 유대감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인데, 다양성과 같이 고상하기는 하지만 혹시나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옹호하기 보다는 클럽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SCI 논문의 할당량을 채우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나마 그런 분위기에 불구하고 자신의 연구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절차탁마하는 몇몇 이상한 별종에 의해서 한국 대학의 학문이 유지되는 현실이 다행이지만 말이다.

한편 다음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젊은 층을 보면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대학의 서열화를 넘어서,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지만 발칙하기 그지없는 'SKY' 라고 불리는 귀족대학과 정원유지에도 애를 먹는 평민대학으로 구분되는 '대학 계급화'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으로 직결되는 우리의 중등교육환경에서 다양성은 기득권의 세습이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원 입시준비학과로밖에 비칠 수 없는 '자우전공학부'를 만들어내는 귀족대학에서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가치일 것이다.

다양성이란 결코 안락성을 추구하는 가치는 아니다. 언제나 시끄럽고 종종 얼굴을 붉히면서 언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는 곳이 다양성이 있는 사회인 것이다. 다양성의 불편함을 귀찮아하고 동질성에 안주하는 사이, 과학기술부는 시나브로 교육부에 통폐합되었고 이제는 과학재단도 같은 전철을 밟을 상황에 처해 있다. 물론 통폐합이 무조건 반대만 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러한 의사결정과정의 변두리에 맴도는 과학기술계의 현실에서 1960년대 인종차별이 존재하던 미국 남부의 버스에서 앉을 자리를 고민하던 경계인 티엔 교수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특히 IMF 때에도 깨지지 않았던 '65세 정년보장' 표 철밥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 사회에서 과학기술인의 의사를堂堂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다양성 부족에서 오는 철학적 단일함의 결과가 아닐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⑤D



글쓰이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UC샌디에이고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